

#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준비성 실태 분석 연구\*

## An Analysis on Preferred Occupation and its Readiness to Students i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이 종 문(Jong-Moon Lee)\*\*

### < 목 차 >

I. 서론	1. 문헌정보학과 제시 전공학생 진로
II. 선행연구	2. 문헌정보학 전공자 취업실태
III. 연구 내용과 방법	3. 선호 직업 및 준비성 분석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학생들의 취업가능 및 취업 희망직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 요건 및 준비성 실태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들에서 조사, 발표한 직업분야와 취업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K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학부 학생들의 선호 직업군과 직업준비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헌정보학과 학부 학생들이 진출가능하다고 한 직업은 49개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①-⑳ 순위 직업에서 사서직군은 29.2%로 낮은 반면, 여타의 직업은 52.9%로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진출희망 직업에서는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①-⑳순위 직업에서 사서직군 45.8%, 여타의 직업이 50.6%로 나타나 실제 진출희망 직업에서는 사서직군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 요건을 종교, 어학, 학업성적, 자격증, 경력으로 구분, 취업공고에 나타난 지원요건과 준비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2%가 보통 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공자의 사회적 역량확대와 취업을 향상을 위해 전공 관련 다양한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지도할 것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개념의 취업지도를 시행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정보전문가, 정보 전문분야 취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those majoring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on the jobs that they can get and want to work for, employment requirements and their preparation, to identify problems and to suggest how to improve current status. To this end, the jobs and employment rate reported by most of the Dept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the preferred jobs and preparation to those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were surveyed with 107 students studying in the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the K University as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49 jobs were identified as the jobs that those majoring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ould get into. In the 1st to 20th job ranking groups, 82.1% of all identified jobs, librarian job took lower ranking as 29.2% while other jobs accounted for 52.9%. However, among the jobs from the 1st to 20th ranking accounting for 96% of all jobs that the subjects wanted to have, the librarian job took 45.8% and other jobs 50.6%, which suggested that the preference on librarian job was slightly increased among the jobs that the subjects wanted to have. Furthermore, the employment requirements were classified into religion, language, scholastic achievement, certification and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investigation on requirements from employment announcement, 92% were in the generally acceptable level or insufficient level.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a variety of jobs to students and to provide Case-by-Case employment guidance for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 and social capability of students.

Key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pecialist, Information-related Job Groups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mlee@ks.ac.kr)

• 접수일: 2009년 5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 I.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과 사회 간에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여 취업문제가 대학의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1980년 이후 대학의 수를 급속하게 팽창시킨 결과로 수요와 공급에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에 국가적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가 취업으로 귀결(歸結)되어 취업문제가 대학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헌정보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신인 도서관학과들은 전공자의 대부분을 도서관적 직종(job family)에 진출시켰으나, 1980년대에 들어 학과의 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5개 학과에서 33개학과로 급증하면서 도서관적 직종에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관념(觀念)이 잠재된 탓인지 전공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도서관적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취업난이 가증(加增)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은 문헌정보학이 “전통적인 도서관학에 학제적인 성격을 지닌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sup>1)</sup>인 탓도 있을 것이다[문헌정보학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문헌과 정보를 대등한 병립적 합성(문헌+정보)으로 보는 견해와 문헌이 정보를 수식하는(문헌에 대한 정보) 개념으로 보는 견해”<sup>2)</sup>가 상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립적 합성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하지만 “문헌정보학이 산업혁명의 영향인 정보홍수라는 정량적 정보문제의 개인적, 사회적 해결 및 정보의 요구와 정보수요의 분화라는 정성적 정보문제의 개인적, 사회적 해결을 위해 생겨났다”<sup>3)</sup>는 점을 직시할 때, 전공자의 직업분야가 광의의 정보 전문직으로 확대되지 않고 도서관적 직종에 집중되어 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전공자의 직업분야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도, 도서관적 직종에 집중되어 온 전공자들의 직업관(occupational view)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홍현진<sup>4)</sup>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직업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으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 전문직인 사서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 전문직으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는 “분업화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일”<sup>5)</sup>로 이해될 수

1) 이용남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연구보고서, 1995, p.115.

2) 이재철,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 도서관학과와 과명칭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1990, 12), pp.3-34.

3) 이용남 등, 전게서, p.139.

4) 홍현진, “21세기 정보 전문직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0, 9), pp.277- 301.

5) 야후 백과사전.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은 단순하게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직업 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 이상의 것<sup>6)</sup>” 즉 직업지위·직업위세·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루어 내는 등 여러 수단적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그러하듯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한 생계의 유지와 경제적 지위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지위와 위세를 갖기 위해서도 그 기반인 직업을 얻어야 하며, 언뜻 가능한 광의의 개념에서 정보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관점에서 문헌정보학과들이 제시하는 진로분야와 취업실태 조사를 기초로,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준비성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직업을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한 다음, 그간의 교육을 통해 얻은 소양 등을 토대로 전공자가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식별케 하고, ② 자신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 후, ③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준비성 요소를 식별하여 현 단계에서의 준비성 실태를 파악,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들의 전공교육 방향 설정과 전공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공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직업 준비성을 갖추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I. 선행연구

“문헌정보학의 학부과정이 정보 전문직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한 현장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모두 망라하기는 어렵다”<sup>7)</sup>는 지적이 있음에도, 그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정보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정보 전문직으로 전제하고,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외 연구를 보면, Matarazzo와 Clarke<sup>8)</sup>는 New England Jobline이라는 민간회사의 도서관정보센터에 게재된 직무구인광고를 분석, 주제 분야의 요구도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다. Shank<sup>9)</sup>는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subtype=enc&pk=18418300&field=id&p=%EC%A7%81%EC%97%85>〉 [cited 2009. 3. 15].

6) 문태관, “직업가치에 의한 직업선택,”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제8권(1975), p.449.

7) 장혜란, “문헌정보 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 현황과 요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1997. 3), pp.7-28.

8) James M. Matarazzo, Joshua Clarke, “The Influence of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on the Special Library Job Market,” *Information Outlook*, Vol.12, Issue4(Apr 2008), pp.10-16.

9) John D. Shank, “The Blended Librarian: A Job Announcement Analysis of the Newly Emerging Position of Instructional Design Libraria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7, Issue6(Nov 2006), pp.515-524.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세 가지 정기간행물(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Library Journal,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과 웹사이트(Educause)에 게재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구인광고를 분석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서의 직책을 조사하여 10개의 직책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고, 직책의 자격과 책무성을 분석하였다.

Zhang<sup>10)</sup>는 1966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경향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사서에 게서 요구되는 외국어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외국어능력의 요구는 계속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 추세였지만 그 이후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Dewey<sup>11)</sup>는 최근의 이슈와 경향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공공직업에 대한 평가 행위관점에서 전형적인 사서직업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학도서관을 고찰, 당면한 이슈와 경향을 다루었다. 이 밖에 Shontz와 Murray<sup>12)</sup>는 사서직의 업무,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사서직의 직무를 사서, 연관 기관, 출판 분야, 도서관 벤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Dority<sup>13)</sup>은 정보 전문직의 준비성 방향 제시와 더불어 직업분야를 128개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외의 연구들은 대학원 중심의 교육으로 양성된 정보 전문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를 학부중심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전공 정보 전문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를 보면, 정우영, 한승희<sup>14)</sup>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정보 전문직의 유형을 통합하여 정보 전문직의 유형별 범주를, 도서관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사서·교육 분야·기술 분야·도서관 관련 업체·서점·연관기관·웹서비스 분야·정보관리업무·출판·기타의 1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세부 직종을 따져서 17개의 직종에 이르도록 구분하였다. 또 사서직 취업정보 사이트인 사서 'e-마을'에 탑재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구인광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 전문직의 유형은 도서관 정보센터 근무 사서직, 정보관리업무, 도서관 관련 업체, 출판, 교육 분야, 기술 분야, 연관기관, 기타, 서점, 웹서비스분야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성숙<sup>15)</sup>

- 10) Li Zhang, "Foreign Language Skills and Academic Library Job Announcements: A Survey and Trends Analysis, 1966-2006,"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34, Issue10(2008), pp.322-331.
- 11) B. J. Dewey, "Job evaluation systems in academic libraries: current issues and trend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6 Issue4(Win 1985), pp.23-32.
- 12) Priscilla K. Shontz and Richard A. Murray, *A Day in the life : Career Options in Library Information Science*, (Libraries Unlimited, 2007), pp.vii-36.  
<[http://books.google.co.kr/books?id=rTQfOxQtLgIC&dq=A+Day+in+the+life+:+Career+Options+in+Library+Information+Science&printsec=frontcover&source=bn&hl=ko&ei=OXfjSbWSNoLq7A0JhLiQDA&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4#PPR1,M1](http://books.google.co.kr/books?id=rTQfOxQtLgIC&dq=A+Day+in+the+life+:+Career+Options+in+Library+Information+Science&printsec=frontcover&source=bn&hl=ko&ei=OXfjSbWSNoLq7A0JhLiQDA&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4#PPR1,M1)> [cited 2009. 3. 20].
- 13) G. Kim Dority, *Rethinking Information Work : A Career Guide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ies Unlimited, 2006), pp.1-27.
- 14) 정우영, 한승희, "구인광고 분석을 통한 국내 정보 전문직의 취업동향 분석," 제1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58-164.
- 15) 이성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동향에 관한 연구 : 1996년-2001년 서울·경기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57권, 제2호(2002), pp.39-62.

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한 직업분야를 분류하고, 취업현황을 전공분야, 도서관분야, 전공연관 분야, 비전공분야로 구분하여 사회진출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직업분야를 구분하였다. 이 밖에 김지홍<sup>16)</sup>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를 중심으로 국내 사서직 취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상희<sup>17)</sup>는 정보기술이 일반 사서직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사서직 구인광고를 조사하여 사서에게 요구되는 정보기술의 유형과 그 수준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 및 운영, 참고, 수서 정리 등 분야별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학술논문이 아닌 기고 형태의 사서직 취업과 관련된 여러 글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술을 생략한다.

### Ⅲ.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과 직업 준비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먼저 문헌정보학과들이 제시하는 전공자들의 진로분야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에 공시된 취업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K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선호 직업과 직업준비성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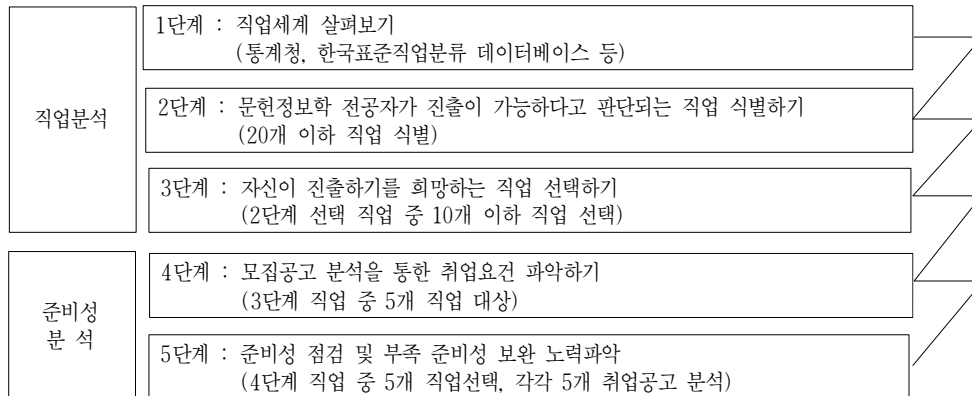
첫째,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는 2009년 4월 현재 33개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헌정보교육학과, 점자문헌정보학과 각 1개 포함)가 설치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들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 URL을 통해 학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진로분야를 식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를 시행하여 대학의 학과(전공) 별 취업률 등을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시에 나타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전공) 중 최근에 신설된 나사렛대학교의 점자문헌정보학과를 제외한 32개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헌정보교육학과 각 1개 포함)의 취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서관직 직종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면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직업 선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학생들의 직업 인식에 따른 선호 직업의 실태와 현 단계에서의 취업 준비성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그림 1>의 조사 도구를

16) 김지홍, “국내사서직 취업 현황 분석과 전망 : 2003-2005년 통계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제7집(2006), pp.111-127.

17) 최상희, “구인광고에서 나타난 정보기술 관련 사서직 자격요건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339-354.

개발하였다.



〈그림 1〉 전공자의 진출가능 및 선호, 준비성 조사 도구

연구방법은 조사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분야 직업선택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한 다음, 1 단계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업정보와 그 해설정보를 살펴 보고, 우리사회에 어떤 직업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의하면,<sup>18)</sup>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은 세분류로 390가지에 이르는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제5차 개정판(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의하면,<sup>19)</sup> 세분류로 447가지, 세세분류로 1,404가지에 이르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방대한 직업세계를 학생들로 하여금 예비 정보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2단계로 전공과정에서 얻은 문헌정보학 소양 등을 기초로 1단계에서 살펴 본 직업을 참조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20개 이하로 선택하여 워크시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3단계로 2단계에서 기록한 직업 중에서 자신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10개 이하로 선택하여 워크시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김충기에 의하면,<sup>20)</sup> 직업은 “개인 자산의 객관적 이해 탐색과정을 통해 소질, 능력, 적성, 흥미, 성격, 가정여건, 신체적 조건, 가치관, 직업세계의 이해와 분석, 미래의 전망, 부모의 기대, 직업윤리 등, 이러한 여러 가지요인들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진로가 설계되어 선택되는 것이

18)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ome Page.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ndex.htm>〉 [cited 2009. 4. 3].

19)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대전 : 통계청, 2000), p.15.

〈[http://www.nso.go.kr/std2006/k07b\\_0000/k07bb\\_0000/k07bb\\_0000.html](http://www.nso.go.kr/std2006/k07b_0000/k07bb_0000/k07bb_0000.html)〉 [cited 2009. 4. 3].

20) 김충기, “직업선택의 전략과 직업상담의 역할,” 학생지도연구, 제21권, 제1호(1988), pp.1-7.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취업포털 커리어와 한국증권신문이 2007년도에 구직자 1,720명을 대상으로 기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sup>21)</sup>, ① 기업이미지, ② 높은 보수, ③ 발전가능성, ④ 고용의 안전성, ⑤ 다양한 복리후생, ⑥ 근무환경 순으로 선택 요소가 분석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직업선택 요인을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주지시킨 후, 가능한 현실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진로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단계로 3단계에서 자신이 진출하기를 희망한 직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5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취업정보 사이트(WORK NET<<http://www.work.go.kr>>, saramin<<http://www.saramin.co.kr>> 등)에 나타난 모집공고를 통해 종교·외국어·학업성적·자격증·경력에 대한 취업요건의 요구 여부와 그 수준을 파악하여 워크시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식별한 취업 요건에 대한 자신의 준비성을 점검하고,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준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문헌정보학과들이 제시하는 진로분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공자들의 취업실태,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직업준비성 등을 파악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문헌정보학과들이 제시하는 진로분야 조사는 2009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전공자들의 취업실태 조사는 2009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수는 ① 학과 제시 진로분야 분석에는 전체 조사대상 32개 학과 중 28개 학과의 데이터가, ② 취업실태 분석에는 전체 조사대상 32개 학과 중 27개 학과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학과는 학과제시 진로분야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홈페이지를 발견하지 못한 4개 학과였다. 그리고 취업실태 분석의 경우 '대학알리미'에 학부단위로 취업정보를 공시한 것 등으로 파악되는 5개 학과였다.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과 준비성 조사는 1차로 2008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7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차로 2008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110개였으며, 이중 107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되지 못한 데이터 3개는 불성실한 응답이 그 원인이었다.

## IV. 분석결과

### 1. 문헌정보학과 제시 전공학생 진로

URL을 통해 각 학과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헌정보학과가 제시하는 전공자의 진로분야를

21) 취업포털 커리어 홈페이지, <<http://www.career.co.kr/>> [cited 2009. 4. 15].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정보학과 제시 전공학생 진로분야\*

순위	직업명	제시 학과 수	비율(%)
1	국·공립도서관사서	28	9.4
2	기업정보센터(도서관)사서	23	7.7
3	초중등교사(사서교사)	22	7.4
4	대학도서관사서	20	6.7
5	방송사정보센터(도서관)사서	20	6.7
6	연구소정보센터(도서관)사서	19	6.4
7	신문조사기자	18	6.0
8	병원도서관사서	14	4.8
9	웹콘텐츠관리	10	3.3
10	학교도서관사서	10	3.3
11	정보전문가	10	3.3
12	인터넷분야	8	2.7
13	기록관리사	7	2.3
14	독서지도사	7	2.3
15	정보검색	7	2.3
16	서집	6	2.0
17	정보서비스	6	2.0
18	특수도서관사서	6	2.0
19	정보연구직	5	1.7
20	정보컨설팅	5	1.7
21	정보·출판유통	5	1.7
22	소프트웨어개발	5	1.7
23	정보시스템업체	5	1.7
24	정보처리업체	5	1.7
25	네트워크관리자	4	1.3
26	기록연구직	4	1.3
27	전자출판	4	1.3
28	웹마스터	4	1.3
29	독서치료사	3	1.0
30	정보사업가	2	0.7
31	정보코디네이터	2	0.7
32	지식규레이터	2	0.7
33	고문서연구사	1	0.3
34	서평전문가	1	0.3
35	레코더매니저	1	0.3
	계	299	100

\* 본 조사는 학과들이 제시하는 직업분야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분석하여 구분한 것임.



URL 접근이 가능한 28개 문헌정보학과가 제시하는 진로분야를 분석한 결과, 총 제시된 직업 수는 35개 직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제시 순위는 ① 국·공립도서관사서, ② 기업정보센터(도서관)사서, ③ 초중등교사(사서교사), ④ 대학도서관사서, ⑤ 방송사정보센터(도서관)사서, ⑥ 연구소 정보센터(도서관)사서, ⑦ 신문조사기자, ⑧ 병원도서관사서, ⑨ 웹 콘텐츠관리, ⑩ 학교도서관사서, ⑪ 정보전문가, ⑫ 인터넷분야, ⑬ 기록관리사, ⑭ 독서지도사, ⑮ 정보검색, ⑯ 서점, ⑰ 정보서비스, ⑱ 특수도서관사서, ⑲ 정보연구직, ⑳ 정보컨설팅 순으로 파악되었다. ①-⑳ 순위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였으며, 이중 사서직이 47%, 사서직과 사서교사(7.4%)를 제외한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도서관직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정보 전문직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출 가능한 보다 많은 정보전문 직종의 직업을 제시하고, 그 직업과 직무를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 2. 문헌정보학 전공자 취업실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취업률을 통해 2007년도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순수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문헌정보학전공자의 취업률 실태

대학명	순수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00대학교	35.1	18.9
00대학교	62.2	27.0
00대학교	35.7	14.3
00대학교	57.1	14.3
00대학교	65.2	13.0
00대학교	60.0	28.0
00대학교	37.1	5.7
00대학교	44.1	23.5
00대학교	59.5	24.3
00대학교	62.2	43.2
00대학교	31.4	11.4
00대학교	37.0	10.9
00대학교	76.5	17.6
00대학교	64.3	39.3
00대학교	26.8	4.9
00대학교	65.4	7.7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대학명	순수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00대학교	74.4	25.6
00대학교	52.6	26.3
00대학교	55.6	16.7
00대학교	52.9	23.5
00대학교	6.19	33.3
00대학교	47.2	44.4
00대학교	58.8	35.3
00대학교	92.5	17.5
00대학교	89.3	8.9
00대학교	34.7	18.4
00대학교	77.4	58.1
계	53.2	21.3

\*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정규직}+\text{정규직(대기발령)}+\text{비정규직(임시직)}+\text{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text{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text{자영업}]}{\text{졸업자}-(\text{진학자}+\text{입대자}+\text{취업불가능자}+\text{외국인 유학생})} \times 100$

\* 정규직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정규직}+\text{정규직(대기발령)}]}{\text{졸업자}-(\text{진학자}+\text{입대자}+\text{취업불가능자}+\text{외국인 유학생})} \times 100$

분석결과, '대학알리미'에서 학과(전공) 단위로 취업률 실태 파악이 가능한 27개 학과의 순수취업률은 '53.2%'로 분석되었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21.3%'로 분석되어 정규직 취업률은 물론 순수취업률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순수취업률의 경우 비정규직에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 전체 취업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자의 상당수가 도서관직 직종에 대한 취업을 선호함으로써 이의 준비를 위해 취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또 순수취업률(53.2%) 중, 비정규직 비율이 '31.9%'로 분석되는 이유 또한 졸업자들이 도서관직 직종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 3. 선호 직업 및 준비성 분석

#### 가. 문헌정보학전공자 진출가능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직업을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문헌정보학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거나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직업을 20개 이내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문헌정보학전공자 진출가능 판단 직업

순위	직업명	응답 수	비율(%)
1	국·공립도서관사서	109	5.6
2	정보서비스 전문가	106	5.4
3	대학도서관사서	105	5.3
4	기록물관리사	101	5.2
5	학교도서관사서	98	5.0
6	연구소정보센터(도서관)사서	95	4.9
7	방송사정보센터(도서관)사서	93	4.8
8	출판물 전문가	90	4.6
9	정보·출판유통	87	4.5
10	독서지도사	83	4.3
11	정보검색 전문가	81	4.2
12	신문조사기자	77	4.0
13	병원도서관사서	70	3.6
14	연구 관리자	70	3.6
15	웹콘텐츠관리	63	3.2
16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60	3.0
17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57	2.9
18	국가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57	2.9
19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52	2.7
20	컴퓨터 운영 관리자	46	2.4
21	초중등학교 사서교사	42	2.2
22	조사 전문가	38	1.9
23	스크립터	36	1.8
24	독서치료사	27	1.4
25	웹마스터	25	1.3
26	서적문구 및 음반 판매원	23	1.2
27	북 디자이너	22	1.1
28	인문과학 연구원	18	0.9
29	큐레이터(학예연구관)	18	0.9
30	교육 연구관 및 교육 연구사	15	0.8
31	컴퓨터 운영 관리자	13	0.7
32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13	0.7
33	상담 전문가	11	0.5
34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대여원	11	0.5
35	보조교사	7	0.4
36	대학교수 및 강사	7	0.4
37	웹 개발자	5	0.3
38	의무기록사	4	0.2
39	대학교육 조교	2	0.1
40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관리자	2	0.1
41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	0.1
42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석가	2	0.1
43	기타	7	0.3
	계	1,950	100.0

전체 107명이 판단한 직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업 수는 기타 7개 직업(작가 및 관련 전문가, 리포터, 군인(장교), 은행사무원 등)을 합하여 49개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순위는 ① 국·공립도서관사서, ② 정보서비스 전문가, ③ 대학도서관사서, ④ 기록물관리사, ⑤ 학교도서관사서, ⑥ 연구소정보센터(도서관)사서, ⑦ 방송사정보센터(도서관)사서, ⑧ 출판물전문가, ⑨ 정보·출판유통, ⑩ 독서지도사, ⑪ 정보검색전문가, ⑫ 신문조사기자, ⑬ 병원도서관사서, ⑭ 연구관리자, ⑮ 웹 콘텐츠관리, ⑯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⑰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⑱ 국가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⑲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⑳ 컴퓨터 운영 관리자 순이었다. ①-⑳ 순위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2.1%였으며, 이 중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9.2%, 사서직을 제외한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로 나타났다. <표 1>의 문헌정보학과가 제시한 ①-⑳ 순위의 직업에서는 사서직이 47%, 사사직과 사서교사(7.4%)를 제외한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9.6%로 파악되어 사서직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들이 판단하는 직업에서는 사서직 보다 여타의 직업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도서관직 직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참고로, 초중등학교 사서교사가 21순위(2.2%)에 머문 것은 교직이수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특히 줄어들어) 자신이 교직이수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교직이수 선발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등의 학생들이 많았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자신의 진출희망 직업

<표 3>에서 선택한 직업 중 자신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10개 이내로 기록하도록 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자신의 진출희망 직업

순위	직업명	선택자 수	비율(%)
1	국·공립도서관사서	98	10.3
2	대학도서관사서	85	8.9
3	정보서비스 전문가	81	8.5
4	기록물관리사	76	8.0
5	학교도서관사서	72	7.5
6	출판물 전문가	63	6.6
7	방송사정보센터(도서관)사서	60	6.3
8	연구소정보센터(도서관)사서	53	5.6
9	신문조사기자	52	5.4
10	독서지도사	42	4.4
11	기업정보센터(도서관)사서	40	4.2
12	정보검색 전문가	33	3.5
13	컴퓨터 운영 관리자	30	3.1

순위	직업명	선택자 수	비율(%)
14	초중등학교 교사(사서교사)	25	2.6
15	웹 콘텐츠관리	23	2.4
16	웹마스터	20	2.1
17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18	1.9
18	조사 전문가	17	1.8
19	큐레이터(학예연구사)	15	1.6
20	국가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12	1.3
21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10	1.0
22	서적문구 및 음반 판매원	8	0.8
23	병원도서관사서	5	0.5
24	정보·출판유통	5	0.5
25	독서치료사	3	0.3
26	북 디자이너	2	0.2
27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2	0.2
28	기타	5	0.5
	계	955	100.0

전체 107명이 진출 희망한 직업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은 기타(기타는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리포트, 군인(장교), 은행사무원 등임) 6개를 합하여 32개로 파악되었으며, 선호순위는 ① 국·공립도서관사서 10.3%(98명), ② 대학도서관사서 8.9%(85명), ③ 정보서비스 전문가 8.5%(81명), ④ 기록물관리사 8.0%(76명), ⑤ 학교도서관사서 7.5%(72명), ⑥ 출판물 전문가 6.6%(63명), ⑦ 방송사정보센터(도서관)사서 6.3%(60명), ⑧ 연구소정보센터(도서관)사서 5.5%(53명), ⑨ 신문조사기자 5.4%(52명), ⑩ 독서지도사 4.4%(42명), ⑪ 기업정보센터(도서관)사서 4.2%(40명), ⑫ 정보검색 전문가 3.5%(33명), ⑬ 컴퓨터 운영 관리자 3.1%(30명), ⑭ 초중등학교 교사(사서교사) 2.6%(25명), ⑮ 웹 콘텐츠관리 2.4%(23명), ⑯ 웹마스터 2.1%(20명), ⑰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1.9%(18명), ⑱ 조사 전문가 1.8%(17명), ⑲ 큐레이터(학예연구사) 1.6%(15명), ⑳ 국가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1.3%(12명) 순이었다. ①-⑳순위의 직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였으며, 각종 도서관의 사서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사서직 42.8%, 사서교사 2.6%)이 45.8%,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표 3>의 진출가능 판단 직업 ①-⑳ 순위에서 사서직(29.2%)보다 여타의 직업(52.9%)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른 것이어서, 상당수 학생들의 직업관이 광의의 문헌정보학으로 옮겨가고는 있으나, 실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서직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직업선택 분야가 다양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사서직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표 2>의 취업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업결과(순수취업률 53.2%, 정규직 취업률 21.3%)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사서교사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 진출희망 직업의 취업요건

〈표 4〉에서 기록한 직업 중 선호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5개 직업을 선택 후, 직업별로 각각 5개의 모집공고를 검색하여 종교, 어학, 학업성적, 자격증, 경력 요건의 요구여부와 그 수준을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도록 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진출 희망 직업에 대한 취업요건

구분	요구 여부		요구 기준	
	요구여부	공고 수(%)	점수 및 기간	공고 수(%)
종교요건	요구하고 있다	184(7)		
	요구하지 않고 있다	2,441(93)		
	계	2,625(100)		
어학요건	요구하고 있다	840(32)	토익 500-599점	101(12)
			토익 600-699점	336(40)
			토익 700-799점	311(37)
			토익 800점 이상	92(11)
	계	840(100)		
요구하지 않고 있다	1,785(68)			
계	2,625(100)			
학업성적요건	요구하고 있다	1,916(73)	3.0-3.4점	747(39)
			3.5-3.9점	977(51)
			4.0점 이상	192(10)
			계	1,916(100)
	요구하지 않고 있다	709(27)		
계	2,625(100)			
자격증요건	요구하고 있다	1,523(58)		
	요구하지 않고 있다	1,102(42)		
	계	2,625(100)		
경력요건	요구하고 있다	971(37)	1년	621(64)
			2년	282(29)
			3년 이상	68(7)
			계	971(100)
	요구하지 않고 있다	1,654(63)		
계	2,625(100)			

전체 조사대상 107명 중 불성실한 조사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종교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취업 공고 수가 '9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요구하는 공고 수는 '7%'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학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가 '68%'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요구하는

공고 수는 '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학요건을 요구하는 직업이 요구하지 않는 직업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Zhang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도 감소하는 경향이 아닌지 주목된다. 요구하는 어학점수는 토익600-699점 '40%', 토익 700-799점 '37%', 토익500-599점 '12%', 토익 800점 이상 '11%' 순이었다.

셋째, 학업성적요건은 요구하는 공고 수가 '73%'로 높은 반면,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는 '27%'로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3.5-3.9점 '51%', 3.0-3.4점 '39%', 4.0점 이상 '10%' 순이었다. 넷째, 자격증요건은 요구하는 공고 수가 '58%',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가 '42%'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가 '63%', 요구하는 공고 수가 '37%'로 나타났다. 경력은 1년 '64%', 2년 '29%', 3년 이상 '7%' 순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이 현재 상태와 졸업직전까지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준비성을 염두에 두고 희망직업과 취업공고를 선별하여 요건을 분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대체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요건(73%), 자격증요건(58%), 경력요건(37%), 어학요건(32%), 종교요건(7%) 순으로 준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경력요건을 요구하는 공고 수가 37%로 나타난 것은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편성하여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하는 직장이 증가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 라. 진출희망 직업에 대한 취업 준비성

〈표 5〉에서 조사한 종교, 어학, 학업성적, 자격증 요건에 대하여 현 상태의 준비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준비성 조사에서 경력요건을 제외한 것은 조사대상이 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 때문이다.

〈표 6〉 진출희망 직업에 대한 취업준비성

구 분	응답 수	비율(%)
매우충분하다	3	3
충분하다	5	5
보통이다	34	32
충분하지 못하다	39	37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24	23
계	105	100

전체 조사대상 107명 중 불성실한 조사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을 조사한 결과, '충분하지 못하다' 37%(39명), '보통이다' 32%(34명),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23%(24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92%) 현 상태의 준비성이 부족하거나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조

사대상 학생의 상당수가 2학년과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남은 재학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과 자기주도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 부족한 준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현 상태에서 부족한 취업 준비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부족한 준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구 분	응답 수	비율(%)
토익점수 획득을 위한 학원수강	27	26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22	21
특성화를 위한 스터디 참여	13	12
임용고시 준비	7	7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취업준비	26	25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10	9
계	105	100

전체 조사대상 107명 중 불성실한 조사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토익점수 획득을 위한 학원수강' 26%(27명),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취업준비' 25%(26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21%(22명), '특성화를 위한 스터디 참여' 12%(13명),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9%(10명), '임용고시 준비' 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용고시 준비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대상 학생 중 4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있으나, 최근 공무원이나 사서교사 임용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진로를 변경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사회는 대학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과 지속되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둔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공자의 취업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도서관적 직업에 집중되고 있는 직업 인식(認識)이 문헌정보학적 직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시점에서 전공학과들이 제시하는 직업분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출가능 및 희망직업분야, 진출을 위한 준비성 실태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과 준비성 실태 파악을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정보학과들이 제시하는 직업분야 분석은 28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였고, 취업률 조사는 27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전공자의 선호 직업과 준비성 실태 조사는 K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얻어진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URL 접근이 가능한 28개 문헌정보학과가 제시하는 진로분야를 분석한 결과, 총 제시된 직업 수는 35개 직업으로 파악되어 비교적 많은 직업이 제시되었으나,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①-⑳ 순위의 중 사서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54.4%(사서직 47%, 사서교사 7.4%)로 높은 반면,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로 낮았다. 둘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과(전공) 단위로 취업률 실태 파악이 가능한 27개 학과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순수취업률은 53.2%, 정규직 취업률은 21.3%로 분석되어 정규직 취업률은 물론 순수취업률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순수취업률(53.2%) 중 비정규직 비율이 31.9%로 높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체 107명의 조사대상 학생들이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직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업 수는 기타 7개 직업을 포함하여 49개 직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①-⑳ 순위의 직업 중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9.2%,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2.9%로 사서직 보다 여타의 직업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직업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체 107명이 진출 희망한 직업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은 기타직업 6개를 포함하여 32개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①-⑳ 순위 직업 중 사서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45.8%(사서직 42.8%, 사서교사 2.6%), 여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로 파악되어 진출가능 판단 직업에서와 달리 자신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에서는 사서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전체 조사대상 107명 중 불성실한 조사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종교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취업 공고 수가 9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요구하는 공고 수는 7%로 낮게 나타났다. 어학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가 68%로 나타난 반면, 요구하는 공고 수는 32%로 나타났다. 요구하는 어학점수는 토익600-699점 40%, 토익 700-799점 37%, 토익500-599점 12%, 토익 800점 이상 11% 순이었다. 학업성적요건은 요구하는 공고 수가 73%로 높은 반면,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는 27%로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3.5-3.9점 51%, 3.0-3.4점 39%, 4.0점 이상 10% 순이었다. 자격증요건은 요구하는 공고 수가 58%,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가 42%로 나타났다. 경력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공고 수가 63%, 요구하는 공고 수가 37%로 나타났다. 경력은 1년 64%, 2년 29%, 3년 이상 7% 순이었다.

여섯째, 전체 조사대상 107명 중 불성실한 조사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을 조사한 결과, 충분하지

못하다 37%(39명), 보통이다 32%(34명),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23%(24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92%) 현 상태의 준비성이 부족하거나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전체 조사대상 107명 중 불성실한 조사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91%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9% 학생은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헌정보학전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전공학과들이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교과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여러 직업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도서관적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과과정의 운영은 물론 학생들의 직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사회적으로 안전성 있게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에 대한 직업의 다양성을 인식시켜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정보공시제로 인해 취업률이 공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률 특히 정규직 취업률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경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전공 학생들이 여러 유형의 정보 전문직 및 연관 직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직업을 택할 시는 사서직군으로 회귀(回歸)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진출가능 직업조사에서는 사서직군보다 여타의 직업 비율이 높았으나, 진출희망 직업조사에서는 사서직군 비율이 상승(上昇)하였다. 결국 이 같은 회귀현상이 수요공급불균형 및 일자리 창출 미흡과 맞물려 비정규직 양산(量産)이나 실업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개념으로 학생의 직업분야를 식별하여 취업준비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준비 요소를 종교요건, 어학요건, 학업성적요건, 자격증요건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준비성이 선호하는 직업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이 또한 대부분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세계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념에서 준비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학과들이 제시하는 직업분야 및 취업실태,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출가능 직업분야, 진출희망 직업분야 및 준비성 실태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취업의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후속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